■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83-114.
http://doi.org/10.17948/kcs.2022..95.83

임진왜란 의병장『일기』조작의 한 사례
—이경연의「龍蛇日錄」을 중심으로—

송수환(宋洙煥)*

목 차

1. 머리말
2.『제월당실기』편찬과「용사일록」조작
3. 조작의 실상
4. 맺음말

국문초록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장 이경연의『제월당실기』는 1909년 10대손 이석정이 편찬하였다. 여기에 실린「용사일록」에는 1592년 4월 21일~25일 함월산성에서의 의병 창의, 지휘부 구성과 결진, 5월 5일의 경주의병 합류와 병영성 함락, 15일의 신흥사 승병 합류와 군량미 제공이 실려있다.

일부 향토사 연구자들이 이들 기록을 논거로 하여 임진왜란 중 전국 최초의 의병 창의, 왜군 수천 명을 격퇴하고 수백 명을 격살한 병영성 승전, 신라 이래 울산 호국 사찰의 최초 승병 참전으로 포장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를 기화로 창의의병 후손들이 관변의 협조하에 선조를 현창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 역사 왜곡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용사일기」는 이경연 자신의 일기가 아닌, 10대손 이석정이 족조 이동영이

* 전 울산대 연구교수.

찬술한 「족조제월당공유사」와 「천재심공유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함월산성의 울산의병에 관한 기록이 모두 허구임을 말해주고 있다. 조작한 울산의병 관련 기록은 후대의 각종 기록에 실려 사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학계에서는 지역사학계의 역사 왜곡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울산의병, 이석정(李錫井), 제월당실기(霽月堂實紀), 용사일록(龍蛇日錄), 일기 조작, 함월산성, 병영성. 신흥사(新興寺), 승병.

1. 머리말

조선시대 양반 계층은 名祖와 顯祖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고, 이에 따른 각종 현양사업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조선후기에는 姓과 本貫, 家系와 祖上 및 이를 기록한 族譜를 활발하게 간행하였다. 또한 시조를 비롯한 명·현조 묘소 찾기도 전 시기보다 더욱 고양되었다. 유명 선조가 양반신분을 확인해 주고, 가문에 영광을 더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선조의 혈통은 물론 관직, 학행 등 遺德을 기리기 위해 묘비를 세우고 비문을 남겼으며, 文集과 實紀 등을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직과 업적을 과장하는 위조 자료와 僞書가 속출하였다. 宗法 의식이 불러온 문벌의식과 숭조사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신흥양반들에 의한 족보 편찬에서 본관을 개변하거나 조상 世系와 派系를 조작, 가탁하는 행위로 자행되었다.[1)]

이런 논지를 따른다면 임진왜란을 겪은 의병장들의 행적을 기록한 實紀類[2)]에도 과장과 위조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여 괄목할 성과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의병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사실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

1) 이수건, 「조선시대 신분사 관련 자료의 비판—성관, 가계, 인물관련 위조자료와 위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14, 한국고문서학회, 1998.

2) 의병장의 기록은 실기·유사·유고·유집 등 다수의 명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실기'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른 한편 의병활동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인 인맥과 지연이 얽혀 연구와 발표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 지역사 연구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연구 환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이를 기화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한 사실을 들어 기념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를 왜곡하는 사례도 있어 학계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고는 지역사 연구의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울산의 한 의병장의『實紀』를 연구하던 중 그 핵심 내용이 후대에 조작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런 사례가 여타 지역에서도 있을 것이라 추론하면서 일부 지역사 연구자들의 역사 왜곡을 경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울산의 임란 의병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역사 연구자 이유수가 울산의 임진・정유재란을 논하면서 논구한 성과가 있다. 한 지역의 왜란 극복사는 의병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울산 의병사의 전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논거 자료에 대한 사료비판이 결여된 데다 자료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서술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3)]

우인수는 울산 의병을 전론한 연구 성과를 보였다. 임란 초기와 강화교섭기, 정유재란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의병의 활동과 그 성과를 의병장과 전적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4)] 지역사 연구에 왜란의 전국적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활용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그는 이를 보완, 확충하여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5)]

2017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의 활동이 주된 내용이었다. 주제는 김경태의「임진왜란 초기 울산 기박산성 의병진의 활동과 울산 주둔 일본군의 동향」, 우인수의「울산지역 의병활동과 '기박산성 창의' 문제」, 김강식의「임진왜란 이전 울산의 관방체제와 기박산성」이었다. 그 성과는 보고서『울산의 기박산성 의병결

3) 이유수,「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울산향토사연구논총』,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7.
4) 우인수,「울산지역 임란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역사교육논집』31, 역사교육학회, 2003. 이는 우인수,『조선시대 울산 지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에 재수록되어 있다.
5) 우인수,「울산 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 2015. 송수환 외,『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진과 임란사 심포지엄』으로 남아있다.[6]

여기의 기박산성은 함월산성을 말하는데, 울산 의병장 李景淵의 『제월당실기』 중 「용사일록」에 등장한다. 함월산성에 전국 최초로 의병이 결진하고, 경주 의병과 연합하여 왜군이 점령한 경상좌도 병영성을 탈환하고, 의병진에 신흥사의 승병이 참전하여 군량미를 제공했다고 실려있다. 이유수가 이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서술하고 함월산성을 현존하는 기박산성(신흥산성)으로 比定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7]

위 심포지엄은 함월산성 의병의 활동과 승병의 참전, 그리고 함월산성이 곧 기박산성이라는 주장을 학계로부터 공인받아 여기에 참전한 의병장 후손들이 모종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 하에 개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행사의 후원에 '임란기박산성의병장후손회'(이하 '후손회')가 참가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울산 최초의 사찬읍지 『학성지』(1749)의 기록에 처음 나타난 기박산성은 현존하고 있다.[8] 1872년 그 지도를 제작하여 「新興山城圖」라 했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奎10514) 그러나 이 산성의 존재와 여기에서 의병이 결진했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 『학성지』에 기박산성 의병 결진 기록은 없고, 왜란 후 최초로 1786년(정조 10)에 편찬한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의 「임진왜변사적」에 기박산성 결진 기록은 없다. 이후 『울산읍지』(1902) 성곽조의 기박산성, 『울산읍지』(1934) 고적조의 기박산성 항에도 결진 기록은 전무하다. 울산의 여타 『읍지』에는 함월산성 또는 기박산성 항목 자체가 없다.

앞의 북구청 심포지움에서 김경태를 제외한 발제자와 일부 약정토론자는 함월산성이 곧 기박산성이라는 논지를 사실상 부정했다.[9] 이보다 앞서 위

---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의 기박산성 의병결진과 임란사 심포지엄』, 2017. 이 중 우인수의 발제문은 『역사교육논집』 68, 역사교육학회, 2018에 재수록되어 있다.

7) 이유수, 앞의 책, 1997, 267-271면.

8) "旗朴山. 在召募陣東北五里許, 山上大石有竪旗之穴, 深可盈尺. 其東有廢山城, 世稱羅代兵營. 城內有將壇軍倉遺址, 水口東注, 築城爲門, 而穹窿不壞, 堅緻如昨. 城北〇里許, 有慶州之旗山烽燧." 「관방」, 『鶴城誌』.

9) 울산광역시 북구, 앞의 보고서, 2017. 참조.

함월산성 의병의 결집과 활동, 승병의 참전과 군량미 제공에 대해서는 조목마다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기박산성과 임란의병』을 출간했다.[11] 위 「용사일록」을 번역, 부연한 것으로 기박산성 의병 결진을 부동의 사실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편저자들은 '(사)기박산성임란의병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이다. '사업회'는 명칭으로 보아 위 '후손회'의 후신임을 알 수 있으니, 사실상 2017년 심포지엄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12]

이로 보다면 기박산성 결진이라는 주제의 선결 과제는 「용사일록」에 등장하는 함월산성 결진의 사실 검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거니와, 역사학은 정확하고 진실한 사료에 입각해야 하며, 그것이 거짓이거나 조작되었다면 그 결론은 史實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 의병장 이경연의 『제월당실기』 중 조작의 혐의가 짙은 「용사일록」을 집중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제월당실기』 편찬과 「용사일록」 조작

『제월당실기』는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장 이경연(1565~1643)의 실기이다. 이경연의 본관은 鶴城, 자는 汝澄, 호는 霽月堂이다. 학성은 울산의 이칭이며, 울산이씨는 울산 9개 土姓 중 하나이다.[13] 그는 조선초기 울주(울산) 향리로서 對日 외교에 공을 세워 향역을 면하고 사족이 된 李藝의 현손이다. 증조는 宗實, 조는 世衡, 부는 鶴, 모는 牙山蔣氏, 처는 蔚山朴氏이다.[14]

그의 의병 활동은 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5월 부터 향토의 기록

10) 송수환, 「울산의 임진·정유왜란」,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168-169면.
11) 이명훈·박채은, 『기박산성과 임란의병』,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2020.
12) 실제로 (사)기박산성임란의병추모사업회는 문화재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31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9월 '기박산성의병 테마파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 8,640㎡ 규모로 '기박산성의병 역사공원'으로 완공하였다. 『경상일보』 2022.04.22.(www.ksilbo.co.kr/)
13) 『세종실록지리지』 울산군, 토성.
14) 『鶴城世譜』(戊申譜, 1668). 『학성세보』는 학성이씨 최초의 족보이다.

에 나타난다. 즉 5월 말 경주 의병과 함께 서진장 왜적을 물리쳤고, 6월에는 경주의 문천회맹에 참여했다. 1593년(동 26)에 문경의 당교전투를 비롯하여 울산의 태화강・공암전투 등에 참여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1594년(동 27) 5월 도산성의 왜적을 공략하고, 7월에 경상도병마좌별장 겸 충청도방어사 권응수의 진영에 합세하였다. 1597년(동 30) 11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성윤문의 군관으로 활동하며 성황당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의병활동 중 1594년 무과에 급제했고, 왜란 후 鏡城 판관에 임용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05년(동 38) 선무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15]

『제월당실기』는 그의 사후 260여 년이 지난 1909년에 10대손 李錫井(1866~1934)이 편찬하였다. 3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울산과 인근의 여러 문중에 반질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청구기호, 古2511-62-93) 그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제월당실기』 편찬 경위는 이경연의 10대손 이석선이 찬술한 「家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제월당의 「일고」 몇 편과 「용사일록」, 「군공사적」이 있어 이를 한 部로 합해 宗家에 보관했다. 그런데 중도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되고 말았다. 이 일을 수행한 후손의 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후 「화왕산성동고록」과[16] 이눌・유정・박지수・김춘룡・이시립의 日錄, 울산의 읍지・향교지와 숙고조가 서술한 「사실」을 참고하여 서술했다. 역시 담당한 후손의 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의 이눌 등 5명은 의병장이며, 숙고조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제월당실기』 편찬 경위는 이경연의 10대손 이석선이 찬술한 「家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제월당의 「일고」 몇 편과 「용사일록」, 「군공사적」이 있어 이를 한 部로 합해 宗家에 보관했다. 그런데 중도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되고 말았다. 이 일을 수행한 후손의 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15) 『울산역사문화대전』(http://ulsan.grandculture.net/) '이경연' 항(김강식・한종민 집필)
16) 「화왕산성동고록」은 「화왕입성동고록」을 오기한 것이다.

〈표〉『제월당실기』의 내용

<table>
<tr><td colspan="4">序(金道和)</td></tr>
<tr><td>권 1</td><td colspan="3">年譜</td></tr>
<tr><td rowspan="8">권 2</td><td rowspan="8">逸稿</td><td>詩</td><td>賦劒 외 8편</td></tr>
<tr><td>書</td><td>與朴義士震男 외 8편</td></tr>
<tr><td>記</td><td>桐華堂記</td></tr>
<tr><td rowspan="2">雜著</td><td>龍蛇日錄</td></tr>
<tr><td>召募文</td></tr>
<tr><td>祝文</td><td>祈含月山祝文</td></tr>
<tr><td rowspan="2">祭文</td><td>哭從弟景度文</td></tr>
<tr><td>附, 休亭李公所撰遺事(10대손 李錫井)</td></tr>
<tr><td rowspan="8">권 3</td><td>摭遺</td><td colspan="2">敍述</td></tr>
<tr><td>遺事(족후손 李汝圭)</td><td colspan="2" rowspan="7"></td></tr>
<tr><td>事實(6대손 李孝承)</td></tr>
<tr><td>家狀(10대손 李錫先)</td></tr>
<tr><td>行狀(李容稙)</td></tr>
<tr><td>墓碣銘(李晩燾)</td></tr>
<tr><td>狀碣後叙(李能吾)</td></tr>
<tr><td>墓誌銘(金道和)</td></tr>
<tr><td colspan="4">跋(鄭鎭憲)</td></tr>
</table>

이어 이석정의 부 李仁中(1825~1886)이 여기에 더할 문적을 찾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이석정의 형 李錫先(1859~1907)이 옛 사람들의 문자를 고증하여 「실기」를 갖추었다. 『제월당실기』의 초고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석선 역시 이를 편찬하지 못한 채 1907년 사망했고,[17] 「실기」의 내용도 알 수 없다.

이능오가 찬술한 「장갈후서」에서 이후의 진척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석정이 이능오를 찾아 「실록(실기)」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선조 제월옹의 古蹟이 왜란과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선형 석선이 읍지에서 찾고, 함께 창의한 가문의 일기와 여러 군자들의 행장과 묘갈문을 얻었으나 아직도 소루합니다. 지금 선조께서 손수 쓰신 저술 몇 편을 다른 가문의 古紙에서 얻었으니 살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제월옹의 「실록」이 바로 『제월당실기』이다. 이를 편집한 후 그 서문을 지어

17) 이석선, 「행장」, 『菊廬集』 권 3, 부록.

달라 요청한 것이다.

여기에 이석정이 '다른 가문의 고지에서 얻은 선조의 저술'을 실었다 했다. 이 저술이 무엇인가? 이석정이 찬술한 「附休亭李公所撰遺事」(이하 「부휴정유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휴정유사」는 李東英(1635~1667)이 찬술한 「族祖霽月堂公遺事」(이하 「족조유사」)를 이석정이 그대로 옮겨싣고, 뒷부분에 자신이 『제월당실기』를 편찬할 때 박기복이란 사람으로부터 이경연의 저술을 입수한 경위와 이 「족조유사」를 참조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동영은 본관이 학성으로 이석정의 족조이다. 그의 호가 二休亭이다. 이경연이 族孫이라 칭한 울산 의병 이한남의 손자이다. 1666년(현종 7) 생원시에 합격했다.[18] 「족조유사」는 이동영이 族玄孫으로서 찬술한 이경연의 행장이다. 1905년에 간행한 『이휴정문집』에 실려있다.[19] 이 「족조유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경연과 울산 의병 활동 일부를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필요한 대목에서 인용하겠다.

「부휴정유사」를 통해 이석정이 『제월당실기』를 편찬할 때 '다른 가문의 古紙'를 입수한 경위를 보자. 먼저 이석정은 박기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경연이 직접 쓴 문헌들을 얻은 내력을 이렇게 말했다.

> A-① 내 선조의 유문이 산질되어 사적을 알기 어려우니, 여러 번 화재를 당했기 때문이다. (…) 금년(1907) 봄에 족질 기락과 함께 박기복씨 문안을 갔다. 말이 우리 가문 선조의 문적에 이르자 오래된 상자에 간직했던 시·문 몇 편을 보여주었는데, 선조께서 지으신 「동화당기」와 시, 창의시의 서찰·소모문과 용사일기였다.[20]

박기복이 간직한 상자에 「동화당기」와 시, 창의 당시의 서찰, 소모문과 함께 「용사일기」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동화당기」는 이경연이 왜란이 끝난 후 옛집에 돌아와 家舍를 짓고 桐華堂이라 명명한 사연을 기록한 기문이다.

---

1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9) 이동영, 「族祖霽月堂公遺事」, 『二休亭文集』 권 1, 遺事.

20) "吾先祖遺文散秩, 事蹟剽昧, 不可影響, 蓋累經鬱攸之戹而然也. (…) 今春與族姪箕洛往候朴丈璣復氏. 朴丈語及吾家先蹟, 因出示舊篋所藏詩若文若干篇, 乃吾先祖小著桐華堂記與詩, 倡義時書牘召募文龍蛇日錄也." 「附休亭李公所撰遺事」, 『제월당실기』 권 2, 일고, 제문.

시 역시 왜란 후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들은 박기복의 선대 누군가가 필사했을 수 있고, 창의시의 서찰과 소모문은 이경연이 누구에겐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소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사일록」은 왜란 당시의 일기인데다 난중 또는 난후 여러 번의 화로 소실되었다 했으니 1907년 당시의 박기복이 소장하고 있을 리 없다.

다음은 「족조유사」를 편찬 자료로 삼게 된 경위이다.

> A-② 또 족선조 휴정공이 저술한 유사가 있었으니, (…) 엎드려 읽으니 눈물이 흐르고 감동과 기쁨이 끝이 없었다. (…) 그러나 이전에 편집한 것과 부합하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었다. 생각해보니 세쇄한 일과 연관되어 잘못 전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고금의 문자에 있거나 없거나, 같거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염려스럽다. 이에 눈물을 닦고 정서해서 「일록」이라 칭하고 가보로 삼았다.21)

여기 족선조 휴정공이 저술한 유사가 바로 「족조유사」이다. 여기에 실린 임진왜란 당시 이경연과 울산의병 활동 일부를 서술한 내용을 보고 감격하여 정서해서 「일록」이라 칭하고 가보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이석선이 앞서 저술한『제월당실기』와 부합하는 것이나 어긋나는 것도 있었고, 또한 어디선가 나타날 문자와 다를 수도 있는 불확실한 내용이어서 염려스럽다 했다. 이 「일록」이 바로 「용사일록」이다.

이 「용사일록」은 박기복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용사일록」과는 다른 것이다. 박기복이 소장한 「용사일록」은 소장 경위가 허위인데 비해, 「일록」은 「족조유사」의 이경연과 울산 의병의 활동을 '정서'한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 '정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록」은 이동영의 「족조유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석정이 편찬한 「용사일록」 바로 그것이다. 애초에 이경연의 「용사일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박기복은 「용사일록」을 소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

21) "又有族先祖休亭公所著遺事. (…) 而伏讀涕零, 感喜罔涯. (…) 然視前所輯一篇, 自有符合者, 或有齟齬者. 竊念盡煤蠹魚之餘, 恐不無傳謄之訛謬, 亦或有古今文有無之同異者矣. 抆淚精書署之曰逸稿, 以爲傳家之寶焉."(위와 같음)

그러므로 『제월당실기』는 박기복이 제공한 이경연의 시・문과 창의시의 왕래 서찰, 소모문과 이석정이 이동영의 「족조유사」 일부를 수정, 부연하여 서술한 「용사일록」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유사・사실・가장・행장・묘갈명・묘지명・장갈후서・발문을 합해 편찬한 것이다. 이로 본다면 『제월당실기』에서 조작했을 것은 「족조유사」를 저본으로 작성한 「용사일록」이다. 이는 '세쇄한 일과 연관되어 잘못 전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고금의 문자에 있거나 없거나, 같거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염려스러운' 것이었다. 모두가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이석정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워낙 울산의 지명과 인명에 한정되어 있어 왜란 통사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와 통사와 연관된 조작 사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사일기」 1596년(선조 29, 병신) 3월 3일 기록에, "팔공산회맹에 참가했다. 송호 유정의 「일록」에 상세한데, 여기에 오리 이원익, 서애 유성룡과 공이 함께 실려있다." 했다.[22] 그러나 유정의 『송호유집』 당일 기록에 회맹에 참가한 울산 인물로는 장희춘・윤홍명・서인충・김흡・유정・유백춘・유태영・이응춘・이봉춘・박손・이응벽 등 11명이 실렸지만 이경연은 없다.[23] 조정 중신 이원익과 유성룡을 내세워 이경연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또 1597년(선조 30, 정유) 7월 9일에, "우방어사 곽재우가 화왕산성에 결진했다고 들어 가묘에 고하고는 모친과 숙부・형제에게 작별하고 여러 의사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 했다.[24] 그러나 화왕산성에 의병장들이 모였다는 기록 「화왕입성동고록」은 곽재우의 증손 곽원갑이 1734년(영조 10)에 간행했다.[25] 「용사일록」이 이경연 자신의 일기가 아닌, 1734년 이후

22) "(丙申年) 3월 3일. 赴八公山會盟 詳在柳松壕日錄 (…) 李梧里元翼柳西厓成龍, 及公同在錄中." 「용사일록」, 『제월당실기』 권 2, 일고. 이하 「용사일록」 기사는 전거 표기를 생략한다.

23) 유정 傳, 안정 역, 『송호유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257-258(역문)・300면(원문)

24) "(정유년) 7월 9일. 聞右防禦使郭再祐結陣於火旺山城, 乃告于家廟, 仍拜辭萱堂及叔父兄弟, 與諸義士領兵馳赴."

25) 이수건, 「『곽망우당문집』의 편간 경위와 관계자료의 성격」, 『망우당곽재우연구』(Ⅰ), 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88;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강대, 2007, 122-127면;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에 서술한 기록임을 말해준다. 여기에 조작의 시간적 공간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하 이 「용사일록」을 중심으로 함월산성 의병 조작의 실상을 살피기로 한다. 함월산성 의병이란 1592년 4월 21일 울산 의병 창의, 23일의 지휘부 구성과 결진, 24일의 열진, 5월 5일의 경주의병 합류와 병영성 함락, 15일의 신흥사 의병 합류와 군량미 제공을 포괄한다. 이 모든 사안이 「용사일록」에만 실려있다.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용사일록」과 중복되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3. 조작의 실상

1) 함월산성 창의와 결진

함월산성 창의와 결진이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 21~24일 울산 의병이 이경연을 중심으로 함월산성에서 창의 → 결진 → 열진했다는 것이다.[26] 이 중 4월 21일 창의를 곽재우의 4월 22일 창의보다 하루 앞서는 전국 최초의 창의라 한다. 이를 날짜순으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왜군의 울산 침입 상황이다.

B-① (임진년) 4월 15일. (왜적이) 연이어 연포・치진・장포・서생・방어진에 정박하여 마을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살해했다. 조총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연기와 안개가 가득하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루 이틀 사이에 5리, 10리에 사람 모습이 사라졌다.[27]

② 4월 17일. 양산・청도・밀양이 함락되고 잇달아 울산과 경주도 함락되었다.[28]

2012, 26-28면;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창녕 지역의 대응과 후대의 기억」,『한국사상사학』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157-158면.

26) 종래 함월산성을 기박산성이라 비정했는데, 이명훈은 이를 사실로 확정했다.(이명훈・박채은, 앞의 책, 2020, 제2장, 기박산성의 역사와 현황). 본고는 이 논란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의 함월산성으로 일관하여 서술한다.

27) "4월 15일. 連泊蓮浦雉津長浦西生防禦津頭, 放散酋卒擄掠閭里殺害人物. 鳥銃之聲掀動天地, 烟霧漲噎咫尺難分. 一二日間, 五里十里人烟永絶 (…)"

B-①에 따르면 울산은 4월 15일에 연포를 비롯하여 치진・장생포・서생포・방어진 등 해안 일대가 왜군에게 점령되었다. 연포는 울산 동천이 태화강에 들어가는 지점 동북쪽 일대이다.[29] 치진은 오늘날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었던 '재나리'라는 작은 포구였다.[30] 장포는 장생포, 서생은 서생포, 防禦津은 오늘날의 鮒魚津이다. 왜군이 울산 해안 일대, 읍치와 병영성이 가까운 연포에까지 침입했다는 것이다. ②에는 17일에 울산이 함락되었다 했다.

그러나 울산에 침입한 왜군은 4월 19일에 상륙한 가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의 2번대였다. 가토오는 상륙 당일 언양을 함락하고, 21일 경주를, 22일 울산을 함락했다.[31] 그러므로 왜군의 15일 울산 해안일대 상륙, 17일 울산 점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용사일록」의 기록은 이처럼 처음부터 사실과 어긋나 있다.

다음은 창의와 부대편성 및 함월산성 열진에 관한 기록이다.

> C-① 4월 21일. 심환・박응정・고처겸・박진남・이한남・김응방 등이 각각 2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이경연을) 찾아오니 모두 3백 명이었다. 함께 창의를 논의했다.[32] ② 4월 23일. 지휘부를 구성했으니, 대장 박봉수・좌익장 박응정・우익장 장희춘・좌위장 고처겸・우위장 이봉춘・찬획 심환・종사관 이한남・운량호군 이경연・좌제군 박진남・우제군 김응방이다.[33]
>
> ③ 4월 24일. 함월산성에서 열진했다. 그래서 (이경연의) 호를 동산의사라 했다.[34]

C-①에 따르면, 4월 21일에 심환・박응정 등 6명이 20여 명씩을 거느리고 이경연의 진을 찾아오니 도합 3백 명이었다. 이들 7명이 창의에 관한 일

---

28) "17일. 梁山淸道密陽三邑陷沒, 連及蔚山慶州."
29) 이명훈・박채은, 앞의 책, 2020, 72면.
30)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191-192면; 민긍기, 『울산의 지명』, 도서출판누리, 2020, 281면.
31) 송수환, 앞의 글,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164-165면.
32) "4월 21일. 沈渙朴應楨高處謙朴震男李翰南金應邦, 如意來到, 各率二十餘名, 合數三百人. 相與商量倡義之事."
33) "4월 23일. 登壇祝告于天 (…) 大將朴鳳壽登壇, 左翼將朴應楨, 右翼將蔣希春, 左衛將高處謙, 右衛將李逢春, 贊畫沈渙, 從事官李翰南, 運粮護軍李景淵, 左提軍朴震男, 右提軍金應邦, 各書姓名."
34) "4월 24일. 列陣于含月山城, 因號東山義士."

을 논의했다. 「연보」에는 이를 '首倡義擧'라 했다.[35] ②에는 지휘부를 구성했으니 10명이다. 이틀 사이에 박봉수・장희춘・이봉춘이 합류한 것이다. 이른바 함월산성 결진이다. 박봉수를 대장으로 내세운 것은 왜란 종식 후 선조가 어사 윤휘를 경주에 내려보내 경주・울산 의병들에게 선유기사를 반포하고 위로연을 베풀었을 때 그가 절충장군 행부호군으로서 울산 장사 165명의 首席으로 참석했기 때문일 것이다.[36] ③에는 이들이 24일 함월산성에서 열진했다고 했다.

함월산성 열진은 이동영의 「족조유사」에 처음 나타난다.

> D-① 임진년 봄에 (…) (이경연) 공이 (…) 가동과 이웃 군정을 모아 (…) 대오를 정비해 산으로 올랐다. 모집한 고을 의병이 군호를 정하고 함월산성에서 열진하니 동산의사라 했다. ② 박봉수・서몽호와 함께 남대와 북대로 나누어 무리룡산에 결진하여 선두에 오는 적을 막으려 했다. 원근 숲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 ③ 부대를 나누어 출전해서 개운포와 도산의 적을, 유정・전응충과 함께 병영에 주둔한 적을, 박손・장희춘・유백춘・윤홍명과 함께 당포・치진・장포의 적을 크게 이겼으니 위대한 공이 보첩에 실려있다.[37]

D-①에 함월산성 열진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고 막연히 임진년 봄이라 했다. ②에 나오는 지도부는 박봉수와 서몽호뿐이며, 각각 남대와 북대를 통솔하여 무리룡산에서 결진했다. 창의와 分隊를 주관한 인물은 이경연으로 그려져 있다. ③에는 의병진의 전승지와 의병장을 나열하고, 이들의 전공이 '보첩에 실려있다.' 했다.

이들 사료가 바로 A-②에서 이석정이 보고서 '눈물이 흐르고 감동과 기쁨

---

35) "(임진년 4월) 21일. 與朴應楨高處謙朴震男李翰南沈渙金應邦, 首倡義擧." 「연보」, 『제월당실기』 권 1. 앞으로 『제월당실기』의 「연보」는 「연보」로만 표기한다.

36) 송수환, 「울산의 왜란 수습」,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328-329면.

37) "壬辰春 (…) 公 (…) 招集家僮隣里軍丁, 收竹爲角, 揭竿爲旗. 整軍伍山上, 召募一邑有義者, 齊聲合力, 定軍號, 列陣含月山城, 因號東山義士. 與朴鳳壽徐夢虎, 分作南北隊, 將結陣無里龍山, 以防先頭之賊. 遠近林藪竄伏之人, 稍稍來集, 軍聲大振焉 (…) 分隊出戰, 大捷開雲島山之賊, 與柳汀全應忠, 大捷兵營留屯之賊. 與崔震立李訥堅川至, 大捷箭灘之賊. 與朴孫蔣希春柳伯春尹弘鳴, 大捷唐浦雉津長浦之賊. 偉功壯烈在譜牒中." 「族祖霽月堂公遺事」, 『이휴정문집』 권 2, 유사.

이 끝이 없었다.'는 「족조유사」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논거가 없는데다, 이 글을 실었다는 '보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편 이동영의 『이휴정문집』에 「泉齋沈公遺事」(이하 「심공유사」)가 있는데, 천재는 심환의 호이다. 여기에는 함월산성이 아닌 함월산 창의가 기록되어 있다.

> E-① 이경연이 5월 23일 최진립의 창의문을 보고 격문을 지어 향병을 모집하니, (…) 공(심환)도 함월산에 올랐다. ② 박봉수・장희춘・이경연・윤홍명・이한남・이겸수・이봉춘이 차례로 도착했다. 박봉수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공을 찬획으로 하고, 군중의 일은 이경연이 주관했다. (…)[38]

E-①에는 창의 날짜가 5월 23일로 되어있다. ②에는 C-②의 지도부 인물 중 박응정・고처겸・박진남・김응방이 빠져있고, 윤홍명과 이겸수가 새로이 들어있다. 「족조유사」 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창의 날짜가 5월 23일인데다, 「용사일기」와 부합하는 것은 박봉수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심환이 찬획을 맡았다는 사실뿐이다. 여기서도 이경연이 창의를 주도한 인물로 그려져 있고, 한편으로 그의 족손 이한남이 참가했다고 되어있다.

이동영은 이들 기록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심공유사」 역시 근거를 알 수 없다. 이동영의 조부가 이한남임을 감안하면 가문에 전해오는 구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한남의 묘갈명에는 함월산성 관련 기록이 없고, 그가 참여한 연도와 지명이 나타나는 첫 전투는 갑오년(1594) 문천전투라 했으니,[39]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동영의 기록은 이경연을 창의를 주도한 인물로 올리고, 조부 이한남과 외척 심환, 그리고 족친 이겸수를 창의 인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선조를 현창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판단된다.[40] 이로 본다면 「용사일록」의 울산의병의 4월

38) "壬辰 (…) 五月二十三日. 東山義士李景淵見慶州義士崔震立倡義文, 同聲相應而檄召募鄕兵.(…) 於時 公 (…) 遂仗劍往于含月山, 朴鳳壽蔣希春李景淵尹弘鳴李翰南李謙受李逢春諸公, 次第至矣. 推朴鳳壽爲大將, 以公爲贊畫, 從事軍中之事, 李景淵主之 (…)" 「泉齋沈公遺事」, 『이휴정문집』 권 1, 유사.
39) 이명훈・박재은, 앞의 책, 2020, 322-323면.

21일 창의, 뒤이은 함월산성 결진은 이석정이 이동영의「족조유사」와「심공유사」기록을 근저로 날짜와 인원을 조정하면서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함월산성 결진을 두고 이명훈은 전국 최초의 의병이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곽재우는 4월 22일에 (…) 의령에서 가장 먼저 기병했다. (…) 그러나 기박산성 의병의 창의는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21일이었다. (…) 창의의 시점, 규모, 조직을 고려할 때 기박산성 의병은 임란 최초의 의병으로 볼 수 있겠다."[41]

임란 최초의 의병 여부를 살펴보자. 경상도초유사 김성일은 5월 초 함양에서 초유문을 작성해 도내에 포고했고,[42] 함양 의병장 정경운의『고대일록』은 그 날이 5월 8일이라 했다.[43] 그런데 이경연의「동화당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마침 왜란을 당해 가솔을 이끌고 월곡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학봉 김공의 초유문과 경주 의사 최진립의 창의문을 보고 (…) 의를 떨치니 가동 18명과 동지들이 한 목소리로 호응했다."[44] 또한 5월 23일 이경연이 지은 소모문에는 "내가 병이 들어 깊은 산 속에 숨어있다가 (…) 어제(22일) 초유사 김공의 초유문과 경주 최진립 의사의 소모문을 보고 적변이 이르렀음을 알았다." 했다.[45]

이처럼 이경연은 왜란 초기 산속으로 피난해 있었고, 5월 22일 혹은 23일 도착한 김성일의 초유문과 최진립의 소모문을 보고 비로소 창의를 결심한 것이다. 이동영이「심공유사」에서 창의 날짜를 5월 23일이라 한 것은 앞에서

---

40) 이경연은 이한남의 조부와 8촌간, 심환은 이한남의 외사촌이다.(같은 책, 143면). 이경연과 이겸수는 학성이씨 시조 이예의 4, 5대손 숙질간이다.(『鶴城世譜』(戊申譜, 1668)). 첨언하면 이겸수는 1594년 사명당이 서생포성에서 가토오와 1~3차 강화회담을 할 때 수행했고, 함월산성 의병과는 무관한 인물이다.(김강식,「임진왜란 시기의 서생포성 강화회담과 의미」,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41) 이명훈・박채은, 앞의 책, 2020, 157・159면.

42) "五月初 (…) 由湖南路進次咸陽 (…) 草招諭文, 布告道內 (…)"「연보」,『鶴峰先生文集』부록.

43) "(5월) 八日丁卯. 上御平壤府, 以金誠一爲招諭使. 誠一到郡, 首招士人, 其文曰 (…)"『孤臺日錄』임진년.

44) "適値島夷之亂, 挈家入月谷深嶂 (…) 一日見鶴峰金公招諭文, 及慶州義士崔震立倡義文, 沫血飮泣, 忘生奮義, 率家僮十八與我同志, 同聲相應."「桐華堂記」,『제월당실기』권 2, 일고, 기.

45) "不佞病伏深山 (…) 昨得招諭使金公招諭文, 又見慶州崔義士震立召募文, 然後始知賊變至此."「召募文」(임진 5월 23일),『제월당실기』권 2, 잡저.

보았다. 그러므로 「용사일록」과 「연보」에 기록된 4월 21일 함월산성 창의는 사실이 아니며, 더구나 곽재우에 하루 앞선 전국 최초의 의병 창의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함월산성 의병 창의와 열진이 허위임은 여러 자료에서 입증된다. 「동화당기」에 실린 창의 당시의 부서 편성은 대장 박봉수・좌익 김응방・우익 박응정・찬획 심환・감양향 장칭과 이덕수, 사무주관 이경연과 이한남 등 8명이다. 그나마 함월산성이라는 집결 장소 표기도 없다.[46] 이 중 장칭과 이덕수는 C-②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며, 여기의 박응정・고처겸・박진남・장희춘・전응충・김응방은 「동화당기」에 들어있지 않다.[47]

「연보」 5월 23일 항에, "운문의 진영에 머물고 있는 박진남 의사에게 서찰을 보냈다." 했는데,[48] 박진남은 이렇게 기록했다. "5월 어느 날 동산의사 이경연이 군사를 합해 적을 섬멸하자는 글을 보내왔다. 운문산 진중에 급히 달려가 고하니 사졸들이 용기백배 했다."[49] 이처럼 박진남은 5월 23일 운문산에서 이경연의 서찰을 받았으니 4월 말 함월산성 열진에 있었을 수 없다.

이 함월산성 창의와 결진은 『제월당실기』의 「용사일록」과 「연보」 외에는 어느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다. 1897년에 이만도가 찬술한 이경연묘비에 단 한 글자도 없고,[50] 『제월당실기』의 유사・사실・가장・행장・묘지명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다. 실려있는 자료는 한결같이 『제월당실기』를 간행한 1909년 이후에 이 내용을 전재하거나 가공, 편집한 것이다.

또한 『기박산성과 임란의병』의 제2부 「결진 16의사의 사적」에서 이들의

---

46) "以朴宣傳鳳壽爲大將, 以金應邦朴應楨爲左右翼, 沈渙爲贊畫, 以蔣倎李德秀監糧餉. 軍中大小事務, 吾與族孫翰南實爲主管 而並心合力 (…)" 「桐華堂記」, 『제월당실기』 권 2, 일고, 기.

47) 이 부분은 우인수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 바 있다. (우인수, 「울산 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256면; 울산광역시 북구, 앞의 보고서, 2017, 46면.)

48) "5월 23일. 與雲門留陣義士朴震男書" 「연보」.

49) "五月日, 東山義士李景淵, 以合軍殲滅之意致書, 走告于雲門留陣中, 桓桓士卒起勇百倍 (…)" 박진남, 「龍蛇錄」, 『悔巖實紀』.

50)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울산금석문』, 2013, 228-233면. 이 묘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동화산에 있다. 비문은 이만도의 『響山集』 권 13, 묘갈명에 「嘉善大夫行鏡城判官李公墓碣銘 幷序」로도 실려있다.

1909년 이전의 장적・묘갈명・행장・신도비・묘비명 어디에도 결진 기록은 없다. 특히 대장으로 추대했다는 박봉수의『대장공실기』(1969)에는「용사실기」에 결진 기록이 없고, 1885년 윤인석이 찬술한「행장」, 1890년 박치복이 찬술한「묘비명」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1923년 이석정이 찬술한「유사」에는 결진 기록이 실려있다.[51] 함월산성 창의와 결진이 이석정의 조작임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2) 경상좌도 병영성 함락

울산과 경주의 의병 연합군이 경상좌도 병영성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격파했다는 기록을 검토해 보자.

> F-① 5월 5일. 경주에서 견천지・유정・유백춘이 의병 5백 명을 이끌고 합류했다. (…) 7일에 출정하기로 했다. (…) ② 이날 밤[52] 3경에 군사를 4대로 나누어 병영성 4문에 매복하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질렀다. 왜군 수천 명이 군기와 총통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4문에 매복해 있던 1,200명이[53] 돌맹이를 던져 수백 명을 격살하였다. 병영성을 점령하고 창고에서 군기・창검・군량・군수품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불태운 후 함월산성으로 되돌아갔다.[54]

F-①의 경주 의병 울산 의병진 합류를 보자. 유정과 유백춘은 숙질 사이이다. 유정의『송호유집』「일기」에는 임진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기록이 전혀 없다. 특기할 활동이 없었다는 뜻이다.[55] 유백춘은 숙부 휘하에 있었으

---

51) "(임진년) 五月 本郡倡義諸公이 推公하야 爲義兵將하야 築壇告天하고, 以朴公應楨으로 爲左翼將하고 蔣公希春을 爲右翼將하고 沈公渙을 爲贊畫하고 李公翰南을 爲從事하고 朴公震男을 爲左提軍하고 金公應邦을 爲右諸軍하고 李公景淵을 管餉하야 主管軍務하고 歃血而盟하야 含月山城에서 列陣하고 (…)"「宣武原從功臣資憲大夫行左捕將兼都摠府都摠管朴公遺事」(1923, 이석정 찬),『大將公實紀』.

52) 원문의 '是夜'는 '7일 밤'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연보」에 '5일'이라 기록되어 있어 후자를 따른다.

53) 1,200명은 원문의 '設伏於四門 (…) 各所伏兵三百人'을 '4문마다 설복한 300명'으로 해석하여 계산한 것이다.

54) "5월 5일. 堅川至柳汀柳伯春自慶州率衆五百名, 傳檄于本陣 (…) 以初七日擇定出戰 (…) 是夜三更, 分置入兵馬營. 分爲四隊設伏於四門, 鼓譟幷進倭酋數千驚動, 莫知所爲. 棄軍器銃筒, 出四門逃走. 各所伏兵三百人, 以小搶石丸, 擊殺數百級. 入據其城, 搜覓各庫軍器槍劒餘粮軍需, 平明消盡餘物, 還據山城 軍勢益振."

55) 안정 역, 2015, 앞의 책, 190-192(역문)・317면(원문).

니 역시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을 수 없다. 유정·유백춘이 합류하지 않았으니 견천지가 참여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5월 초 당시에는 경주도 왜군의 점령하에 있었으니 지역의 정황으로 보아도 경주 의병이 울산으로 원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견천지의 실기 『송호실기』의 장적·묘갈명·묘지명·傳 모두에 병영성 전투 기록은 없다. 다만 「附, 諸賢日記」에 「용사일기」의 '병영성의 전투와 점령'까지의 기록은 그대로 싣고, 함월산성으로 되돌아갔다는 내용은 없다. 「부, 제현일기」는 다른 의병장의 실기에 있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옮겨 싣고 출처를 밝혔는데, 유독 병영성 관련 기록에는 출처를 싣지 않았다. 『송고일기』는 1921년에 간행했으니, 『제월당실기』의 「용사일록」을 가공하여 실은 것이라 할 것이다.[56]

②의 5월 5일 병영성 함락은 공성전 상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먼저 울산을 함락한 왜군이 수천 명 군사를 고스란히 병영성 안에 남겨두고 북상했을 리는 없다. 왜군은 점령지에 최소한의 필요 병력만을 남겨두고 북상했다. 설사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병영성의 외곽 장, 단거리에 전초부대를 배치하여 상대의 공격을 경계하는 것은 兵略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함월산성에서 곧바로 병영성에 도달, 공격했다.

한편 왜군 수천 명은 4문 밖에 매복한 의병들의 북소리와 함성에 놀라 달아났고, 의병들은 원시적 무기 돌멩이를 던져 수백 명을 격살했다. 성벽을 사이에 둔 치열한 공격과 방어의 전투 상황은 볼 수 없다. 1백여 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단련된 왜군이 주무기인 조총 한 발 쏘지 않고, 창칼 한 번 휘두르지 않으면서 패퇴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공성전에서는 공격군이 방어군 보다 몇 배의 병력과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고금의 전쟁사가 말해주는 교범이다. 아군의 전사자는 물론이고 부상자 한 명도 없는 완벽한 승전이 진실일까?

56) 견천지, 『松皐實紀』 해당 기록 참조.

더구나 병영성을 탈환한 아군은 무기・군량・여타 군수품을 찾아 함월산성으로 되돌아갔다. 적이 점거한 성을 공격, 탈환하는 것은 적 치하의 백성을 구하고 안집하는 한편, 차후 벌어질 전투의 방어 혹은 전진의 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성을 탈환하고서도 산성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함월산성에서 병영성까지 행군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 적군의 무기・군량・군수품을 수거해서 다시 본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행로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전투에 직접 참가했다는 이경연의 서술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조작, 서술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병영성 전투를 두고 '이 놀랄만한 전승이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논리적 해명이 필요하다.'거나.[57] '점령한 요새 병영성을 두고 왜 함월산성으로 회군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반론이 있었다.[58] 이를 두고 이명훈은 이렇게 말했다.

> G-① '놀랄만한 전승'이 다른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영성 전투의 '신빙성'을 거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장희춘의『성재실기』등 의병들의 기록에는 병영성 전투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관찬사료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전쟁 기록은 관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변방 울산에서 거둔 승전이어서, 조정에까지 보고될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정황도 고려할 수 있겠다.[59]
>
> ② 이는 당시 의병의 활동이 주로 게릴라 전술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간과한 견해이지 않을까 싶다. (…) 정규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었던 의병들은 주로 치고 빠지는 기습전략 등 게릴라 전술에 의존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정규군을 기습하여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성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60]

---

57) 우인수, 앞의 보고서, 2017, 47면.
58) 송수환,「울산의 임진・정유왜란」,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169면.
59) 이명훈・박채은, 앞의 책, 2020, 141면.
60) 같은 책, 142면.

G-①에서 말하는『성재실기』등 의병들의 기록에 병영성 전투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제월당실기』편찬(1909) 이후 간행한 것으로 해당 기록은 여기의「용사일록」을 베꼈거나 가공해서 편집한 것이다. 반면 1909년 이전에는 이 병영성 전투를 기록한 실기 또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전쟁 초기의 기록이 관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울산 같은 변방에서 거둔 승전이어서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선조실록』과『선조수정실록』에는 의병 전승의 기록이 허다하게 실려있다. 의병은 모두 변방에서 자원한 병력인데, 하필 울산 의병의 전승만 보고되지 않았을 수는 없다.「선무원종공신록권」은 보고된 공훈에 입각해서 작성한 것이다.

②에서 말하는, 게릴라 전술이 탈환한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의병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적은 빼앗기 쉽고 아군은 지키기 어렵다면 그것은 이미 성이 아니다. 적은 빼앗기 어렵고 아군은 지키기 쉬워야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까닭이다. 빼앗기 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병영성이라면 왜군이 처음부터 점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영성 탈환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주 의병이 합류한 후에 있었던 의병장들의 장기자랑에 대한 서술이다. "장희춘은 모래 50斗를 들고, 견천지는 몇석 궁을 당겼다. 박손은 용력이 뛰어나 백 개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었고, 심환은 계책을 세우고 병법을 알아 전투의 승패를 열흘 전에 미리 알았다. 이한남은 격서를 잘 쓰고, 서몽호는 삼백석 궁을 당겨 모두 맞추고, 박봉수는 지모와 도략이 일만 군사의 장수가 될 만하다."[61]

모래 50두는 5石(섬)인데, 결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석궁의 石은 활시위를 당기는 힘의 크기인데 1석은 120斤이었다.[62] 그러므로 1석궁은 120×600g=72kg이다. 따라서 몇석 궁, 또는 삼백 석궁을

61) "5월 5일 (…) 蔣希春擧沙五十斗, 堅川至挽弓數石. 朴孫勇力絶人, 可踊百仞. 沈渙運籌觀兵象, 勝敗知數十日前事. 李翰南善草檄書. 徐夢虎挽弓三百石, 無不中. 朴鳳壽智謀度略, 可將萬人."

62) 沈伯俊・譚良嘯 편저, 정원기・박명진・이현서 편역,『삼국지사전』, 현암사, 2010, 378면.

당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본 장면이 아니다. 심환과 박봉수에 대한 서술은 의례적인 칭송이지만 과장이어서『초한지』의 장량이나『삼국지』의 제갈량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심환에 대한 서술은 이동영의「천재심공유사」를 변용한 것이어서,[63]『이휴정문집』이「용사일기」의 근저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고 있다.

5월 5일 병영성 탈환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자료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연보」5월 5일 항에 먼저 "경주・울산 두 고을 의진이 병영에 둔거한 왜적을 초멸했다." 하고,[64] 세주에「용사일록」의 당일 기록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리고는 "개운・도산의 적을 대파하고, 병영의 적을 연파하고, 전탄의 적을 크게 이겼다." 했다.[65] 병영의 적을 두 번이나 공격하는 등 하루에 4곳에서 전투를 치러 연전연승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다.

「연보」기록의 연이은 4곳 전투는「족조유사」에서 "부대를 나누어 출전해 개운포・도산의 적을 크게 이기고, 유정・전응충과 더불어 병영에 주둔한 적을 크게 이기고, 최진립・이눌・견천지와 더불어 전탄의 적을 크게 이겼다."[66] 한 데서 人名만을 제외한 것이다.「용사일록」의 병영성 탈환 기록은 이 중 '유정・전응충과 더불어 병영의 적을 크게 이긴 전투'를 가공, 각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신흥사 승병과 군량미 운송

신흥사 중 지운의 승병 인솔과 군량미 운송을 살펴보자. 이를 근거로 하여 신흥사와 일부 향토사 연구자가 신흥사를 호국사찰이라 강변하고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H-① 5월 15일. 신흥사 중 지운이 승병 1백여 명을 이끌고 군량미 3백여 석

63) "公善觀天文, 又解爻象, 豫料十日前事."「泉齋沈公遺事」,『이휴정문집』권 1, 유사.
64) "慶蔚兩邑義陣, 勦滅兵營屯據之賊."「연보」임진년 5월 5일.
65) "大破開雲島山之賊, 連破兵營之賊, 大捷箭灘之賊."(위와 같음)
66) "(…) 分隊出戰, 大捷開雲島山之賊. 與柳汀全應忠, 大捷兵營留屯之賊, 與崔震立李訥堅川至, 大捷箭灘之賊.(…)"「族祖霽月堂公遺事」,『이휴정문집』권 1, 유사.

> 을 지고 와 원문 밖에서 군례를 올렸다. 나를 만나자고 청해 말하기를, "군량을 지고 온 승군들은 평소 소승에게 심복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절에 있던 3백여 석의 쌀은 한 달의 군량이 될 것이니 보태 쓰십시오." 했다. 이에 승군을 의병 부대의 끝에 부속시켰다.[67]

신흥사 중 지운이 승병 1백여 명을 이끌고 군량미 3백여 석을 수송해 왔다는 것이다. 먼저 신흥사를 살펴보자. 『울산역사문화대전』은 이렇게 설명했다. 신흥사는 "635년(선덕여왕 4)에 신라 神印宗의 시조 명랑법사가 (…) 창건했으며, 이때의 사찰 이름은 建興寺였다." 그리고 승병과 관련해서는 "임진왜란 때는 (…) 울산성이 함락되었을 때 승려 지운을 비롯한 승병 100여 명이 기박산성에 있던 의병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승려들의 의병 활동이 알려져 왜군에 의해 절이 불탔다." 했다. 그리고는 "1646년(인조 24)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 李伋이 중건했다." 했다[68]. 신흥사 측이 내세우는 구전해 온 연혁을[69] 부연한 것이다.

신라 명랑조사가 건흥사를 창건했다는 말은 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에서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술의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70] 『삼국유사』에 따르면, 명랑이 경주의 금광사를 창건하고, 그의 후계자 안혜와 낭융 등이 원원사를 창건하고, 고려 태조 왕건이 명랑을 위해 개성에 현성사를 창건했다. 이 외 천마산의 총지암, 모악산의 주석원이 신인종에 소속되었다.[71] 천마산은 개성, 모악산은 전주에 있다. 사천왕사는 명랑이 두루문두루비법으로 창건한 절이라 했다.[72] 이들이 명랑이 창건하거나

---

67) "5월 15일. 新興寺僧智雲率僧軍百餘名, 負軍粮設軍禮於轅門外. 請見于余曰, 運粮諸軍, 小僧之平日心服者也. 今日寺中米可至三百餘石, 軍粮添助用之, 乃以僧軍附後."

68) 『울산역사문화대전』 '신흥사' 항(신용철 집필), http://ulsan.grandculture.net/

69) 신흥사, http://www.sinheungsa.co.kr/

70)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 출판부, 1979, 766면.

71) "按金光寺本記云, 師挺生新羅, 入唐學道. 將還因海龍之請, 入龍宮傳祕法, 施黃金千兩[一云千斤], 潛行地下, 湧出本宅井底, 乃捨爲寺. (…) 以龍王所施黃金飾塔像, 光曜殊特, 因名金光焉. (…) 及我太祖創業之時, 亦有海賊來擾, 乃請安惠朗融之裔廣學大緣等二大德, 作法禳鎭, 皆朗之傳系也, 故幷師而上. (…) 又太祖爲創現聖寺, 爲一宗根抵焉. 又新羅京城東南二十餘里有遠源寺. 諺傳, 安惠等四大德與金庾信義元金述宗等, 同願所創也. (…) 先是密本之後有高僧明朗, (…) 天磨之摠持崙, 毋岳之呪錫院等, 皆其流裔也." 「明朗神印・惠通降龍」, 『삼국유사』 권 5, 神呪.

그와 관련있는 절 모두이다

원원사는 울산과 가까운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데,[73] 이로 보아 명랑이 건흥사를 창건했다면『삼국유사』에 기록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신흥사가 오랜 유서를 내세우려 명랑조사의 창건을 모칭한 것이다. 실제로 신흥사에서 수습된 와편과 금석문・명문은 신라~고려~조선전기의 것은 단 한 점도 없고 모두가 조선후기의 것이다.[74]

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60여년 전(1530)에 간행한『신증동국여지승람』울산군, 불우조에는 열암사・백련암・운흥사・망해사・청송사・대원사만 실려 있다.[75] 왜란 이전까지 신흥사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신흥사는 조선후기에 창건되었는데, 그 내력은 울산 최초의 사찬읍지『학성지』사찰조에 처음으로 실려있다.

『학성지』는 1749년(영조 25) 울산부사 권상일이 편찬을 주도하고 울산 사림 박망구, 이현담・원담 형제가 참여했다. 박망구는 1721년(경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76] 문집『상체헌집』을 남겼다. 이현담은 본관이 학성으로 영조조에 향청 좌수를 여러 차례 역임하고,[77] 이원담 역시 영조조에 울산 구강서원 원장을 지낸[78] 토착 향사림이다. 이들이 찬술한『학성지』는 완결을 보지 못한 채 권상일 부사가 이임했고, 그가 교감한 흔적이 있는 수고본이 전해오고 있다.[79] 여기에 실린 신흥사 창건 내력은 이러하다.

H-② 신흥사는 동대산 동쪽 기슭에 있다. 인조 24년(1646) 절도사 이급 공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허물어진 산성에 이르렀다. 북쪽에 기이한 흔적이 있어 땅을

72)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祕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船皆沒於水. 後改創寺, 名四天王寺."「文虎王法敏」, 위의 책, 권 2, 紀異.

73) 원원사. www.wonwonsa.com/

74) 최선일,『울산 사찰 문헌조사 연구』, 울산학연구원, 2011, 176-180면.

75) "裂巖寺(在東大山南), 白蓮菴(在東大山西), 雲興寺(在圓寂山), 望海寺靑松寺(俱在文殊山), 大原寺(在佛光山)."「불우」,『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군.

76) 박민효(박망구),「行狀」,『常棣軒集』권 1.

77) 이종서 역,『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62-63・66면.

78) 구강서원복원추진회,『鷗江書院誌』, 2004, 284면.

79)『학성지』편찬에 대해서는 우인수,「1749년(영조 25) 울산읍지『학성지』의 편찬과 그 의미」,『한국사연구』117, 한국사연구회, 2002에 자세하다.

> 골라 인감・혜종 두 중에게 재물을 모아 절을 짓게 하고 신흥사라 이름지었다. 부역을 병영에 속하게 했다. 요사 넷과 암자 둘이 있다.[80]

이에 따르면, 신흥사는 왜란 후 1646년(인조 24)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이급이 인감・혜종 두 중으로 하여금 기금을 모아 창건하게 하였다. 병영에 속하게 한 중들의 부역은 종이를 납부하는 紙役이었다.[81] 병마절도사가 지역을 부과하기 위해 창건을 명했던 것이다. 이로 본다면 신흥사는 왜란이 끝난지 46년 후에 창건했음이 분명하다.

2021년 12월 22일 신흥사의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49호로 지정되었는데,[82] 이에 앞서 그 복장유물에 '順治六年 歲次己丑二十八日 新興寺新造成佛像記(이하 '조성기')'라는 기문이 발견된 바 있다. 1649년(순치 6, 인조 27)에 이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내력을 기술한 것이다.

이 '조성기'에, 신흥사는 명랑의 도량인데 왜란을 거치면서 숲이 되었고, 경상도의 兵將이 1645년(을유, 인조 23)에 중 5, 6명을 불러다 재촉해서 짓게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83] 병장은 병마절도사 이급을 말한다. 병마절도사가 중으로 하여금 절을 짓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5, 6명이라거나 연대가 1645년으로 한 해 늦은 것은 『학성지』의 기록과 다르다. 명랑의 도량 혹은 왜란으로 소실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본대로 근거가 없는, 이 절에 내려오는 구전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신흥사 중 지운과 1백 명의 승병, 3백 석의 군량은 사실이 아니다. 왜란 당시의 승병 100명은 청, 장년일 터인데, 사실이라면 신흥사는 어린이・노약자・여성을 포함하면 수백 명을 관할하는 사찰이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신흥사의 위치, 규모로 보아도 가당한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

---

80) "新興寺, 在東大山東麓. 仁祖二十四年丙戌, 節度使李公圾, 因獵行到廢山城. 山北有奇蹟, 相地使印鑑慧宗二僧, 募緣建寺, 名曰新興. 使屬役兵營, 有四寮兩菴" 「사찰」, 『鶴城誌』.

81)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윤재건(1828)과 신종익(1839)이 신흥사의 지역을 감면해 주었다는 선정비가 있다.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3, 앞의 책, 214・284면.

82)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83) "(…) 其寺曰明朗之道場也. 初壬亂之時, 亂賊煨燼, 今至成林也. 昔者一道兵將, 乙酉之初, 執促聚僧, 於四五名之主也(…)" 「新興寺新造成佛像記」.

사찰의 승병과 연합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군량미 3백 석은 당시 이런 소규모의 절이 축적하고 있을 규모라 할 수 없다. 이처럼「용사일록」의 신흥사 관련 기록은 모두 조작한 것이다.

조작한 신흥사의 유래와 왜란 당시의 승병 및 군량미는 지역사회에서 증폭, 확산되고 있다. 한 향토사 연구자는 신흥사는 창건 때부터 호국도량의 성격을 띠어 신라가 외침에 대비해 만리성을 쌓는 동안 승병들이 여기서 무술을 연마하여 울산지역 승병 활동의 거점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전국 최초로 승병이 봉기하여 기박산성 의진에 참가하고 군량미를 제공했다고 한다. 나아가 밀양 표충사에 사명당을 모시는 유교 공간이 있다 하면서 지운을 울산의병 추모사당 충의사에 배향해야 한다고 했다.[84]

신라의 만리성은 관문성인데, 울산과 경주 경계에 쌓은 석성이다. 성덕왕(702~737) 때 쌓았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읍까지 12㎞에 달한다. 사적 18호이다.[85] 그런데 이 성을 쌓는 동안 여기서 승병들이 훈련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왜란 당시의 호국사찰 신흥사를 견강부회하면서 덧붙인 날조이다.

표충사의 유교 공간은 표충서원이다. 임진왜란 때 의승장으로서 공을 세운 휴정・유정(사명당)・영규를 향사한다. 이들을 임진왜란 3대 의승장이라 한다. 휴정은 8도16종선교도총섭에 임명되어 전국 승병을 지휘하여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웠고, 제자 유정도 관동에서 도총섭군에 합류하여 평양성 탈환에 참전했다.[86] 유정은 울산 서생성 가토오 진영에 들어가 강화회담을 하면서 적정을 탐지하고,[87] 왜란 후에는 끌려간 동포들을 쇄환하는 등 대일본외교를 수행했다.[88] 역시 휴정의 제자인 영규는 승병 8백여 명을 이끌고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전투에서 패해 순절했다.[89]

---

84) 박채은,「신흥사 주지 지운 스님, 울산 충의사에 모셔져야」,『경상일보』, 2019.07.08. (www.ksilbo.co.kr/)
85)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86) 김경태,「임란시기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의 의승군 활동과 평가」,『국학연구논총』25, 택민국학연구원, 2020.
87) 김강식, 앞의 글, 송수환 외, 앞의 책, 2015.
88) 한태문,「조선후기 통신사와 사명당」,『어문연구』64, 어문연구학회, 2010.

표충서원은 1610년(광해군 2)에 창건하여 表忠祠라 했고, 1738년(영조 14)에 사액되었다. 밀양시 무안면에 있었는데, 1839년(헌종 5) 영정사로 옮겨 표충서원이라 편액하고, 영정사도 表忠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액은 의승장들의 공훈과 순절을 국가에서 포상했다는 뜻이다. 제향 의례는 유교 서원과 대동소이하지만 대상이 승려여서 魚肉을 사용하지 않고, 茶로 술을 대신했다. 모든 집사와 집례도 승려들이 맡았다.[90] 전후 사실이 이러하므로 조작한 인물 지운을 3대 의승장에 빗대어 제향공간을 운위할 수는 없다.

한편 『울산역사문화대전』은 '지운(智雲)' 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서술했다. "지운은 신흥사의 승려였다. 그는 승병 100여 명을 이끌고 양식 300여 섬을 기박산성으로 실어갔다. 신흥사는 임진왜란 때 울산 일대의 승병을 지휘하던 군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했다. 승병 훈련은 기박산성 일대에서 이루어졌고 지운이 담당했다. 현재 신흥사 대웅전 아래에 '신성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이 건물 터는 승병을 지휘했던 군사령부 건물이 있던 곳이다."[91]

이렇듯 신흥사는 승병 군사령부로, 기박산성은 승병 훈련소로, 지운은 의승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신흥사의 신라 이래 호국도량과 승병의 무술 연마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왜란 당시의 전국 최초의 승병 봉기와 군량미 지원도 조작이다. 신흥사가 승병을 지휘한 사령부라거나, 지운이 승병을 훈련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용사일기」의 기박산성 의병 결진 조작은 이렇게 후대에 더 가공, 확산되어 향토사 나아가서 한국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89) 황인규, 「의승장 기허영규와 의승의 봉기—특히 일본 종군승과 의승의 실체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90) 이철헌, 「밀양 유림의 표충사 수호」,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
91) 『울산역사문화대전』 '지운' 항(조원영 집필).(http://ulsan.grandculture.net/)

4. 맺음말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장 이경연의『제월당실기』는 1909년 10대손 이석정이 편찬하였다. 여기에 실린「용사일록」에는 1592년 4월 21일 함월산성에서의 울산의병 창의, 23일 지휘부 구성과 결진, 24일 열진, 5월 5일의 경주의병 합류와 병영성 함락, 15일의 신흥사 승병 합류와 군량미 제공이 실려있다.

일부 향토사 연구자들이 이들 기록을 논거로 하여 임진왜란 중 전국 최초의 의병 창의, 왜군 수천 명을 격퇴하고 수백 명을 격살한 병영성 승전, 신라 이래 울산 호국사찰의 최초 승병 참전으로 포장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를 기화로 창의의병 후손들이 관변의 협조하에 선조를 현창하는 기념사업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에서 역사 왜곡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왜곡의 이면에는『제월당실기』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검증하는 사료비판의 과정이 누락되어 있었다. 처음 1900년대 초기 이경연의 후손들이 그의『실기』를 편찬하려 했으나 근거 자료가 없었다. 이경연의 手墨이 전란 속에서, 또는 전후의 화재 등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의병장들의 실기를 참조하는 등 시행과 착오를 거듭하다가 이석정이 이경연이 왜란 중에 쓴 소모문・서찰 그리고 족조 이동영이 찬술한「족조제월당공유사」와「천재심공유사」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제월당실기』를 편찬하였다.

함월산성 의병에 관한 기록은 여기의「용사일록」에 실려있다.『제월당실기』편찬 과정을 검토하면 이 기록에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석정이 족친인 이동영의「족조제월당공유사」와「천재심공유사」의 의병에 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단편적인 기록을 모본으로 하여 조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최초의 의병' '병영성 탈환' '신흥사 승병' 등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작한 울산의병 관련 기록은 후대의 각종 기록에 실려 사실로 확산되어 가고있다.「용사일록」에서 의병진에 참여했다는 인사들의 행장・유사・묘비문・묘갈명 등 문헌과 비갈, 그리고 울산의 각종 임란공신 관련 서적에 실린

글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제월당실기』를 편찬 이후의 것으로 「용사일록」을 베끼거나 편집한 것이다.

이처럼 한 의병장의 조작된 실기는 역사를 왜곡하고, 나아가서 후손들에 의한 관변과 합작한 현창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학계에서는 지역사 왜곡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鶴城世譜』(戊申譜, 1668)
『鶴城誌』

견천지,『松皐實紀』
김성일,『鶴峰先生文集』
박민효(박망구),『常棣軒集』
박봉수,『大將公實紀』
박진남,『悔巖實紀』
유정 傳, 안정 역, 2015,『松壕遺集』
이경연,『霽月堂實紀』
이동영,『二休亭文集』
이만도,『響山集』
이석선,『菊廬集』
일연,『三國遺事』
장희춘,『誠齋實紀』
정경운,『孤臺日錄』
신흥사,「新興寺新造成佛像記」

구강서원복원추진회,『구강서원지』, 2004.
권상로,『한국사찰전서』, 동국대 출판부, 1979.
김강식,「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지역과 역사』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26-28면.
_____,「임진왜란 시기 창녕 지역의 대응과 후대의 기억」,『한국사상사학』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157-158면.
_____,「울산의 왜란 수습」,『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_____,「임진왜란 시기의 서생포성 강화회담과 의미」,『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김경태,「임란시기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의 의승군 활동과 평가」,『국학연구논총』25, 택민국학연구원, 2020, 381-410면.
민긍기,『울산의 지명』, 도서출판누리, 2020.
송수환,「울산의 임진·정유왜란」,『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_____,「울산의 왜란 수습」,『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우인수,「1749년(영조 25) 울산읍지『학성지』의 편찬과 그 의미」,『한국사연구』117, 한국사연구회, 2002, 125-153면.
_____,「울산지역 임란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역사교육논집』31, 역사교육학회, 2003, 165-

187면.
_____,『조선시대 울산 지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_____,「울산 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울산임란사재조명』, 울산충의사, 2015.
_____,「울산지역 의병활동과 '기박산성 창의' 문제」,『역사교육논집』68, 역사교육학회, 2018, 195-212면.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울산금석문』, 2013.
울산광역시 북구,『울산의 기박산성 의병결진과 임란사 심포지엄』, 2017.
이명훈・박채은,『기박산성과 임란의병』,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2020.
이수건,「『곽망우당문집』의 편간 경위와 관계자료의 성격」,『망우당곽재우연구』(Ⅰ), 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88.
_____,「조선시대 신분사 관련 자료의 비판—성관, 가계, 인물관련 위조자료와 위서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14, 한국고문서학회, 1998, 1-32면.
이유수,『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_____,『울산향토사연구논총』,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7.
이종서 역,『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이철헌,「밀양 유림의 표충사 수호」,『한국불교학』48, 한국불교학회, 2007, 451-480면.
최선일,『울산 사찰 문헌조사 연구』, 울산학연구원, 2011.
하영휘,「화왕산성의 기억」,『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강대, 2007, 122-127면.
한태문,「조선후기 통신사와 사명당」,『어문연구』64, 어문연구학회, 2010, 235-256면.
황인규,「의승장 기허영규와 의승의 봉기—특히 일본 종군승과 의승의 실체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66, 동양고전학회, 2017, 9-33면.
沈伯俊譚良嘯 편저, 정원기・박명진・이현서 편역,『삼국지사전』, 현암사, 2010.

『경상일보』(www.ksilbo.co.kr/)
『울산역사문화대전』(http://ulsan.grandculture.net/)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문화재청(https://www.cha.go.kr/)
신흥사(http://www.sinheungsa.co.kr/)
원원사(www.wonwonsa.com/)

【Abstract】

A Case of Manipulating『Diary』of a Righteous Army in the Imjin War —Focused on Lee Gyeong-yeon's「Diary in the years of Imjin war」—

Song, Soo-Hwan*

『Jewoldang Silgi』(霽月堂實紀) written by Lee Gyeong-yeon (李景淵), the leader of righteous army in Ulsan during the Imjin War, was compiled in 1909 by Lee Seok-jeong, a 10th-generation descendant. The「Diary in the years of Imjin war」(龍蛇日錄) that was published here includes the voluntary creation of righteous army at Hamwol Mountain Fortress from April 21 to 25, 1592, the organization of the command and gathering for battle, the joining of Gyeongju righteous army and the capture of Byeongyeong Fortress on May 5, the joining of monk soldiers from Sinheung Temple on the 15th, and providing military rice.

Some local historians are using these records as an argument to distort history by exaggerating it as the nation's first voluntary creation of righteous army during the Imjin War, the victory of the Byeongyeong Fortress that repulsed thousands and slaughtered hundreds of Japanese soldiers, and the first military participation of monks from the Ulsan temple to defend their nation since Silla. Beginning with this, the results of historical distortion are being revealed, such as the descendants of the righteous army carrying out a project to commemorate the ancestor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officials.

However, the「Diary in the years of Imjin war」is not written by Lee Gyeong-yeon himself, but it was manipulated by Lee Seok-jeong, the 10th-generation descendant, through modification and amplification based on the records of Lee Gyeong-yeon and Simhwasn (沈渙) written by his far ancestor, Lee Dong-yeong (李東英). This reveals that the records of the Ulsan righteous army of Hamwol Mountain Fortress are fictional. But the manipulated records related to Ulsan righteous army are being published in various records of later generations and spreading as facts. Taking this into account, it is

* Former Research professor, Ulsan Univ.

time for the academic community to deal with the historical distortions of the local history academia.

Keywords: Ulsan righteous army, Lee Seok-jeong (李錫井),「Diary in the years of Imjin war」(龍蛇日錄), Hamwol Mountain Fortress (含月山城), Byeongyeong Fortress (兵營城), Sinheung Temple (新興寺), Monk Soldiers (僧兵).

접수일: 2022.03.21.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9.